

주찬양교회, 필리핀 TOP OPOL 교회 헌당

해외 16번째 지교회 세워...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



부천시방교회 주찬양교회(홍사진 목사)가 3월 8일(월)부터 13일(금)까지 필리핀 선교 일정을 진행하며, 현지 교회 헌당감사예배와 구제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에 힘썼다.

선교 일정 가운데 3월 9일에는 필리핀 부천 실무암 밤반교회 헌당 감사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러졌다. 이날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

신 성전 건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예배를 통해 교회가 단순한 건물에 그치지 않고, 영혼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어 3월 10일 TOP OPOL 교회 헌당감사예배를 드렸다. 특히 TOP OPOL 교회는 주

찬양교회가 해외에 세운 16번째 지교회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주찬양교회는 지금까지 해외에 15개 교회를 개척해 왔으며, 이번 TOP OPOL 교회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세계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됐다.

헌당감사예배에 참석한 선교팀과 현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또한 교회 개척이 단순히 예배 처소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지 복음화와 제자 양육, 지역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도 되새겼다.

이번 선교 기간 중에는 Kilig 초등학교 구제 사역도 진행됐다. 선교팀은 현지 학생들과 이웃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제 지역은 도움이 필요한 현지인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를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이 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 주는 귀한 사역이었다.

주찬양교회는 그동안 해외 지교회 개척과 선교사역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이번 필리핀 선교 역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함께 어우러진 귀한 열매로 평가받고 있다.

홍사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리핀 현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찬양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필리핀 선교는 교회 개척과 헌당, 그리고 구제 사역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실천을 함께 보여 준 뜻깊은 일정으로, 현지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활절 설교 | 히브리서 12:1-2, 요한복음 20:18

부활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박용철 목사 / 참좋은교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경제적 불안,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우리 마음의 풍경은 그리 밝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축하 인사를 나누지만, 정작 우리 얼굴은 근심으로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는 거룩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2절 상반절에 기록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자'의 헬라어 '아포로레스 (ἀπορροεσ)'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결단되게 만드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오직 한 대상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달릴 때 주변의 장애물이나 관중석의 소음에 한눈팔지 않듯, 우리 인생의 파도와 불확실한 미래에서 눈을 떼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에는 세 가지 얼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요 20:1-19).

첫째는 '울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기억 속에 갇힌 죽은 분이었습니다. 시선이 없어졌다는 상실감에 빠져 곁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둘째는 '두려움에 굳어버린 제자들의 얼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 굳은 얼굴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셋째는 '구름으로 빛나는 증인의 얼굴'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 주실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린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I have seen the Lord)!"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믿음의 주(Pioneer)'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세상의 긍정적 확신이나 지적 동의, 일시적인 체험의 신앙은 삶의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를 견디신 원동력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광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환희를 미리 바라보셨기에 거친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지고 있는 각자의 십자가 너머에 예비된 승리의 기쁨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2천 년 전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재현되어야 할 능력입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최종 승리'라는 목적지를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환경만을 보던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근심의 얼굴을 벗고 부활의 미소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는 마리아의 고백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결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칸타타

성결교회 선교 120년차대회 및 제105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헌장 제93조에 의거하여 제105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대의원 및 대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바라며 교단 산하 모든 교회는 성 총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제 : '성결의 빛 120년, 재림 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
- 일 시 : 2026년 5월 18일(월) ~ 19일(화)
- 장 소 : 오크밸리리조트
(오크밸리 컨벤션 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56)
- 문 의 : 총회 사무국(070-7132-0010, 0011)

- 총회 기도제목
- 1. 교단의 비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 2. 거룩한 총회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홍사진 목사